

농특산물 쇼핑몰 '화순팜' 이벤트, 농가소득 한몫

네이버페이 등 접근성 강화 4월 10일까지 행사 잇따라

화순군 농특산물 쇼핑몰 '화순팜'이 최대 30% 할인 쿠폰 지급 등 이벤트를 마련했다. 군이 화순팜을 개편해 스마트폰 접속, 네이버페이 결제 등 사용자의 접근성을 증대시킴에 따라 온라인 판로 확장을 통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을 리뉴얼 오픈하며 할인과 함께 대형 이벤트 '놀러와 화순팜'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함께 온라인 판로 확장을 통한 농촌 소득 증대

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을 개편했다.

지난달 24일 화순팜 시스템 재구축을 완료하고 15일~4월10일 화순팜 온라인 집들이인 '놀러와 화순팜' 이벤트를 추진한다.

'놀러와 화순팜' 행사는 할인 이벤트, 신규가입 이벤트, 황금열쇠 이벤트, 애플 시 이벤트를 통해 최대 30% 할인 쿠폰 및 최대 5000원 적립금을 지급한다.

할인 쿠폰은 계정당 1회 발급되며 전상품 20% 최대 2만원까지 할인된다. 황금열쇠 이벤트를 통해 10% 추가할인도 받을 수 있다.

황금열쇠 이벤트는 추가 10% 중복할인 쿠폰 이벤트로 추가 할인 대상 품목은 일정별로 다르며 기간별 예산 소진 시 조



화순농특산물 쇼핑몰 화순팜. 화순군 제공

기 종료될 수 있다. 품목별 황금열쇠 이벤트의 일정은 △농산물, 쌀, 축산물, 수산물(19일까지) △가공상품(20~26일)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27일~4월2일) △전체상품(4월3~10일) 등으로 짜여져 있다.

할인 이벤트 외 △퀴즈 이벤트 △리뷰 이벤트 △SNS 공유 이벤트를 열고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등 최대 2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화순군은 이번 '화순팜'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스마트폰 앱을 신규 개발해 휴대폰으로도 화순팜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고 네이버 페이로도 결제 가능하다. 향후 카카오톡과 연동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팜 홈페이지를 오픈함에 따라 화순군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고 신규고객을 확보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영암군 달마지복지센터 개관

영암군은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달마지복지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달마지복지센터는 총사업비 40억 6000만원이 투입돼 1284㎡의 부지면적에 2층 규모로 건설됐다.

카페와 체력단련장, 커뮤니티실 및 동아리실 등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드석복협동조합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했다.

영암군은 달마지복지센터가 영암읍 새 문화·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구례군, 삼대삼미 한마당 연다

구례군은 '산수유꽃 축제'와 함께 '삼대삼미 구례 5일 시장 한마당' 행사를 오는 18일 구례 5일시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삼대삼미 주민협의체(대표 소재덕)가 주관하고 구례군과 구례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주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난타 문필자팀, 좌도 전수농악, 아리랑 장구, 실버악단 등 구례읍에서 활동하는 단체·동아리가 참여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구례=김상현 기자

영암 '학이 머문 쌀' 미국 첫 수출 서영암농협, 전체 400톤 계약

서영암농협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유기농 쌀이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오르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서영암농협은 최근 학산면 친환경쌀유통센터에서 '학이 머문 쌀'의 미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된 건강 맞춤형 쌀인 '학이 머문 쌀'의 이번 선적 규모는 총 10톤이다. 미국 서부지역의 마트 9개 지점에 납품될 계획이며, 향후 전체 계약 물량 400톤이 순차적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영암=이병영 기자

'태국·베트남 시장개척단' 모집 전남경진원, 5월1~6일 수출상담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성희)은 '태국·베트남 시장개척단' 참여기업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태국은 관광산업 회복, 민간 소비 활성화를 통한 성장세 전망, 아세안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도 넥스트 차이나 생산기지로 GVC 수혜국 입지를 확립하고 있고 동남아 4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 전남도와 경진원은 태국·베트남 시장 해외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돕고 있다. 전남 제품을 제조·생산 유통하는 전남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바이어 발굴 및 상담장 임차, 통역과 항공료를 지원한다.

상담회는 5월1~6일 일정으로 15개 기업 내외로 수출 실적 150만불을 목표로 한다.

이성희 경진원장은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 확대와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해외투자 유치활동 본격 재개 광양만권경자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편된 국제 공급망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 2.0, 혁신생태계 조성 전략'을 수립했다. 기능성화학, 이차전지와 수소 산업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금속·소재 부품, 물류·운송 등 핵심 전략산업을 지정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대비한 외자유치 기반을 마련한 것.

경제청은 오는 4월 중국 상하이, 항저우 등 이차전지 분야 기업 방문할 예정이다. 대만 국제자동차 부품 박람회,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중국 국제에너지시장 포럼 등에 참석하고 발굴한 잠재투자 기업들을 찾는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여 개국에 전남 광양만권의 투자 여건을 전달하고 보다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흑두루미 인연 자매결연 순천시-충남 서산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5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서산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만 전봇대를 뽐은 그 남자!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 순천시 노하우를 공유했다.

자매결연 협약서 서명과 기념패를 교환하고 2023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약정을 하는 등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순천시와 서산시는 지난 1월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우호관계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순천시는 4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31일 개막식에 이완섭 서산시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목포 북항동 경로당, 그림책 테라피 운영

목포시 북항동이 북항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오는 11월까지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목포시 제공

'면역력 회복 탁월' 해남황칠나무, 지리적 표시 등록

농림부 최종심의 통과 황칠나무 품목 전국 첫

해남 '해남황칠나무'가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로 등록된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황칠나무가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를 최종 통과해 산림청 공고를 앞두고 있다.

'해남황칠나무'가 지리적표시로 등록되면 황칠나무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해남 황칠나무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

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해남황칠나무가 최종 등록되면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만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황칠나무는 인삼 및 가시오가피와 같은 파낙스 계열 상록활엽수로 나무인삼이라고도 불리며 남해안과 제주도가 주산지이다.

체내 독성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전남 비교우위 산림자원으로 산림 6차산업화의 선두

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진녹색의 잎이 밝고 진한 외관을 가진 해남황칠은 셀레늄, 타닌 등 이차대사산물과 비타민 C, 갈속 등의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고, 황칠 본연의 향이 진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일원 지역에서 수령 200년 이상 황칠나무 자생 군락지가 발견되는 등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까지 지역특화림 공모사업에 8년연속 선정돼 총 380ha 특화림을 조성하는 등 황칠 산업 육성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 봄소식 알리는 축제 잇따라

18~19일 땅끝 매화축제 25일 달마고도 힐링축제

해남군은 땅끝매화 축제와 달마고도 힐링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8~19일 산이면 보해매실농원 일원에서 매화를 배경으로 제9회 땅끝매화 축제가 펼쳐진다.

산이면문화체육진흥회 주관으로 열리는 축제에서 지역 예술인 문화공연과 풍물단 길놀이, 해남 특산물 라이브 경매,

제1대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 등이 함께하는 개막 축하공연, 매화가요제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먹거리 장터,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관람객 대상 보물찾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는 25일 해남 미항사와 달마고도 일원에서 '2023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가 개최된다.

길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숲속 버스킹과 재즈, 퓨전 국악,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공연의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

노르딕 워킹, 명상 등 힐링 체험 프로그램과 SNS 인증샷 이벤트, 해남 특산물을 판매하는 달마장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해남의 봄축제는 4~5월에도 이어진다. 4월 흑석산 철쭉제가 계속되면 흑석산 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되고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3일간 황산면 우항리 공룡박물관 일원에서 '쿵! 쿵! 공룡찾아 해남으로'란 주제로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가 처음으로 열린다.

해남군 관계자는 "봄축제를 시작으로 사계절 내내 축제가 열리는 해남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